

■ 야 통합정당 연내출범 합의는 했지만...

당원투표나 시민참여나 ... 경선룰 과제로

새지도부 내년 총선 공천권 행사 ... 당권투쟁 치열할 듯

민주당이 '선(先) 통합·후(後) 경선'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통합신당 호는 출범을 위한 닳을 울리게 됐지만, 통합수입기구 구성·경선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측 간 상당한 이견이 있어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 수입기구 구성=순환규 대표와 독자전대의 대표격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선 통합(12월 11일 또는 17일) 후 지도부 선출(1월 중)이라는 중재안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당내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통합 과정을 이끌 통합수입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현 지도부는 승계형식으로 그동안 통합준비를 해온 지도부가 맡아 이끌어가는 방식을 원하고 있지만, 박 전 대표 측은 다음달 11일 열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임시 지도부를 꾸린 뒤 통합수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수입기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통합정당의 지도부 선출 방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측의 불신을 받지 않으면서 예민한 통합과정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당원투표권 vs 시민참여권=민주당과 혁통이 지도부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선출될 통합신당(가칭)의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당권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80만명의 당원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당원과 대의원의 의견이 대쪽 반영되는 경선을 원하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당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혁통 등 비민주당 세력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

는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 열세인 조직력을 보완하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향후 통합신당 지도부 선출 등에 있어서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적 인사들 신당 참여 관건=신당 창당 때 민주당에 적을 둔 인사들이 혁통 쪽으로 당적을 옮기는 문제로 남은 과제다. 현재 일각에서는 공천에 불리하거나 비주류 민주당 인사들이 혁통 쪽으로 당적을 옮기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들은 야권 통합 기류에 편승, 혁

신과 통합을 매개로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는 총선 후보 난립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재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 당 당 통합시 원소속 복당을 금지하는 안을 마련해 합의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혁통 추진 위원 365명 중 민주당원이 281명이다. 당적을 옮기는 대다수는 현재 당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표를 쫓아다니는 인사들이 다시는 민주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송전탑 갈등 풀어봅시다"



강원도 광주시장이 28일 송전탑 이설 문제로 한국전력과 인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광주 북구 연제동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당권 경쟁 점화

민주당과 '통합과혁신'이 주도하는 야권 통합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개로 예정된 통합야당 전당대회에 도전할 당권주자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비 당권주자들은 향후 있을 경선을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한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당원과 시민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선·김부겸·이종걸·이강래 의원 등이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해왔다. 야권 통합의 실무 역할을 해온 이인영 최고위원도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VS 한명숙 ... 사실상 양강구도

박주선 '포기'·이인영 '출마'·이종득 '저울질'

영남권 출신으로는 김태량 전 국회 사무총장이 나선 상황이다. 특히 친노(친 노무현)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최근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근 '당권 포기'를 선언, 대선 출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당권 주자는 외형적으로는 박 전 원내대표로 단일화된 상황이다.

비민주당 진영에서는 '혁신과통합'

의 문성식 국민의명령 대표가 출마 권유를 받고 있고 시민사회 쪽에서는 김기식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이용선 혁신과통합 상임대표가 거론된다. 통합 연석회의 합류를 선언한 한국노총에서도 이종득 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커 다카호스로 예상된다.

이처럼 자전단탄 거론되는 당권 후보는 10명이 넘지만 박 전 원내대표와 한 전 국무총리의 양강구도로 당 대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이 단독 전당대회를 했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박지원 대세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통합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뽑게 되면 박지원 대세론은 힘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한 전 총리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행보에 힘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민주당 내 뿐 아니라 통합과혁신에도 우군이 많다는 평이다. 반면 한 전 총리가 신당의 당권을 잡는다면 도로 '열린우리당'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민주 국회등원 지역예산 확보 힘써달라"

■ 강운태 시장·박준영 지사 촉구

"한나라 예산안 날치기 더 이상 안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예산 심의가 파행을 빚는 것과 관련해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민주당의 예산 국회 등원을 촉구하고, 지역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강운태 시장은 28일 "민주당이 나라 살림을 심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3년 동안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해온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에서 광주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이는 필요조건이다. 예결위에서 의결돼야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증액된 다목적댐과 도시광산 기술원, CT연구원 등은 광주 미래와 관련된 신규 사업예산인데, 이러한

예산들이 물거품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민주당 측에 투쟁은 투쟁이고, 예산안 심의는 심의다. 국회의원이 나라살림을 심의하는데 거부하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 심의는 제대로 해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예산이 법정 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처리된 적이 있느냐"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하면 우리끼리 예산 심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민주당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예산안 파행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2012년 예산국회에 등원해 지역사업을 챙기고,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에 반발해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제한 뒤 "국회에 등원해 공정한 예산안 처리와 FTA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처리를 한나라당에 맡겨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난 3년간 예산안 날치기로 전남도가 추진해온 각종 대형 사업 국고 예산이 줄줄이 누락됐고, 또다시 전남도의 대형사업 국고 예산이 누락 위기에 처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 지역사업을 챙기고, 의회민주주의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예산안 날치기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與 "예결위 복귀하라" 野 "FTA 날치기 사과부터"

예산안 파행 책임 공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파행 책임을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라는 정치적 사안을 빌미로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 없이 국회 파행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28일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조속히 예결위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헌법이 명시한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며 "예산안 심사가 정치적 현안과 결부돼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바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심사 재개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아 논란 끝에 하루 이틀 정도 민주당의 참여를 더 기다리기로 했다.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해야 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4년 연속 날치기 처리하려

는 것인지 한미 FTA 날치기 비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예산안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 www.joytour.kr
(현금수출 발행 가능)

오렌지호 & 스타크루즈호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박

목포-제주도 ₩139,000원~
장흥-제주도 ₩15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원) 후원: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카멜리아로 떠나는 겨울온천 즐기기!!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콘도

4월 ₩349,000 출발일 12/18,21,25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일본 전통료칸 스키유 마을 온천 즐기기

4월 ₩489,000 출발일 12/21,1/3,5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4월 ₩549,000 출발일 12/21,1/3,5,1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예술인들과 떠나는 유후인탐방

3월 ₩250,000원 출발일 12/8
불포함: 개인경비

품격 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4월 ₩969,000원 출발일 12/20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세계 자연문화 유산이 빛나는 앙코르와 캄보디아!!

무안-씨엠피 전세기 (12/24~ 2/28 총 20회)

씨엠피 3박4일 [준특급.토요일출발] ₩799,000~
씨엠피 3박5일 [준특급.화요일출발] ₩799,000~
불포함: 유류세(137,000원), 캄보디아비자(\$20), 선택관광, 가이드및기사팁(\$30)

씨엠피 3박4일 [준특급.토요일출발] ₩1,160,000~
씨엠피 3박5일 [준특급.화요일출발] ₩1,160,000~
불포함: 유류세(137,000원), 캄보디아비자(\$20), 선택관광, 가이드및기사팁(\$30)
골프시-클럽중식3회, 캐디팁(18홀-\$5), 공동경비(\$10)

활기찬 표정과 열정이 넘치는 곳!!

무안-마카오·홍콩 전세기 (12/26~1/23 총 9회)

4월 홍콩/마카오 (금요일출발) ₩849,000~
4월 홍콩/마카오/심천 (금요일출발) ₩899,000~
5월 홍콩/마카오/심천 (월요일출발) ₩849,000~
5월 홍콩/마카오/심천/주해(온천)(월요일출발) ₩8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선택관광, 개인비자

4월 주해 골프(54H) (금요일출발) ₩1,249,000~
5월 주해 골프(54H) (월요일출발) ₩1,25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캐디팁, 전통카 1인 사용시 비용, 개인비자, 가이드/기사팁, 클럽중식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사유증)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영업부담보험 가입 / 여행계약 가입업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비: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차역 *경비요를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성황에 따라 다름